

광주 U대회 지원법 통과되나

국회 국제대회 지원 특위 오늘 구성될 듯 대회 기금 마련 수익사업 명문화 등 포함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지원법’을 다룬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구성 결의안이 8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U대회 지원법 제정에 ‘정신호’가 켜졌다.

국회 경기대회 지원특위가 구성돼 U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법’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현재까지 여·야간 법안에 이견이 없는 상태가 때문에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기존 ‘2011년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에 U대회 지원법안을 포함한 일종의 통합법이다.

여·야는 7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법을 처리할 국제경기대회 경기지원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돌연 ‘2020년 월드컵 유치 지원’ 내용을 특위 구성 결의안에 포함하자고 제의,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만나 이 제안을 받아들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8일 오전 9시40분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0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을 위해 운영하도록 한 특위 구성 결의안 내용에 ‘2020년 월드컵 유치 지원’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어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정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구성 결의안은 통과가 유력하다.

이같이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가

구성될 경우 U대회 지원법 처리가 본격 논의돼 U대회 준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경기대회 지원특위가 심의할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법안은 기존 ‘2011년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에 포함돼 있지 않은 대회 조직위의 수익사업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대회 조직위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회기금의 재원을 광고수익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여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념 주화, 기념 우표 발매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공무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기대회 안전보장을 명문화한 것도 두드러진다. 이는 기존 독자입법으로 제정할 예정이었던 U대회 특별법안에 담겨있던 것으로, ‘국가는 선수·임원·보도진·관람객 등의 안전을 위해 대 테러 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의무규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존 U대회 특별법에 명시된 남북 체육교류 지원조항은 빠지게 된다. 대구시와 인천시가 남북 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낀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 광주하계 U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동시 입장 등 체육 교류는 향후 출범할 U대회 조직위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또 법안에 따르면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대회조직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인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화해의 세족식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일 과거사 평화적 청산 민간화해 세족식’에서 재한 일본여성들이 태평양전쟁 피해 희생자 생존자들의 발을 씻겨 주자 정몽준 대표가 화해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추진위 구성...재판 판결문 등 3만여건 검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5·18민주화운동 세계기록유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일 오전 광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한 5·18과 관련한 각종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인사들은 지난 3일 모임을 갖고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김영진 의원을 추진위원장으로, 박광태 시장과 조비오 신부, 강신석 목사, 지선 스님 등 4명을 상임고문으로,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부부장을 실무추진단 단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자료 작성을 시작해 내년 3월 말까지 신청서를 유네스코 측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제 학술 심포지엄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유네스코 국제전문가심사위원회는 오는 2010년 9월 광주 현지실사와 정밀 감정 등을 거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승인하면 오는 2011년 7월 말 등재가 결정된다.

추진위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뒤 내년 1월~3월까지 등재대상 자료 정리, 신청서 영문번역 작업 등을 거쳐 내년 3월말 세계 기록유산 신청서 제출 선포식을 연다.

추진위가 등재 대상으로 분류한 5·18 관련 자료는 모두 3만5천772건으로 ▲증언자료(719명 증언, 증언 녹취 테이프) ▲행정자료(5·18보상 관련 서류, 미국무성 자료, 군 당국 자료 등) ▲언론·잡지(간행물, 신문자료) ▲사진자료(5월 항쟁 사진과 슬라이드) ▲영상자료 ▲기타(성명서, 홍보물, 단행본, 석·박사 논문) 등이다.

시는 등록 대상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데다 국제적으로도 조명받고 있는 5월 항쟁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영상·구술자료, 재판기록 등 다방면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추진위는 실제 벨스 만델라 남아공대통령의 형사재판 기록, 벨스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록, 필리핀 민주화 운동 장면을 담은 영상물 등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례에 비해 5·18 관련 문건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남아공, 아르헨티나, 칠레, 폴란드, 필리핀 등 최근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사례를 비롯해 동의보감 등재신청 과정도 분석할 방침이다.

5월 관련 기록물들이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유네스코로부터 보존·관리에 대한 보조금과 기술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5월 관련 기록물을 CD, 디지털 테이프 등으로 발간할 경우 국제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은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

국회 한은법 개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조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융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조사 요구를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한은이 금융기관에 여신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은 설립목적에 불가안정 외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위기 시 한은도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획재정위와 정무위는 물론 한은, 금융권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한은법 개정안의 법사위처리예상전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고 진로교육 대폭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활성화 방안 시안’ 발표

초·중·고교생들은 고교 졸업 전까지 최소 3회 이상 진로 적성검사를 받고 ‘부모님 직장 체험의 날’ 등을 통해 직업 체험 기회를 갖는 등 진로·직업 교육이 지금보다 크게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국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교과부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

등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책임자 김기현, 최동선 박사)가 6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시안은 크게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진

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등 3개 정책영역, 10개 과제로 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일차간접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교 1학년 등 최소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운영되는 ‘직업세계체험주간’을 ‘진로의 달’로 확대하고 ‘부모님 직장 체험의 날’을 만들거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해 학생들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확정, 내년 1월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진로교육을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주 2박3일 패키지 (선박)
98,000~

가족, 연인이 함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는...
카멜리아로 떠나는 큐슈 온천여행
출발일: 12/24 광주출도착 크리스마스 황금연휴

4월 425,000w~

겨울방학 **일본 문화체험**
출발일: 1/05, 1/07, 1/15

4월 369,000w

출발일: 1/07, 1/15 (광주출도착)

4월 419,000~499,000w

일본의 3대 테마파크중 하나인 작은 네덜란드리볼리우는
하우스텐보스 즐기기
출발일: 1/17 광주출도착

4월 549,000w

무안에서 상해로.. 12/26일부터 매주 수,토 운항

4월 359,000w 상해, 함주, 소주
▶포함사항: 서커스, 발맞사지

4월 699,000w 상해, 장가계
▶포함사항: 발맞사지

5월 729,000w 상해, 장가계, 소주(or 함주)
▶포함사항: 서커스 발맞사지

4월 499,000w 상해, 함주, 황산(산아래)
▶포함사항: 발맞사지, 송성가무소

4월 499,000w 상해, 함주, 심심산
▶포함사항: 발맞사지, 송성가무소, 황포강유람선

▶포함사항: 중국항공료, 택시, 유류, 호텔료, 현지입장료, 호텔, 식사, 자방, 식차
▶불포함사항: 중국비자, 여행자보험, 가이드비

◆ 무안 (-) 하이난 1월 6일~21일(항공 주2회(수,일) 운항